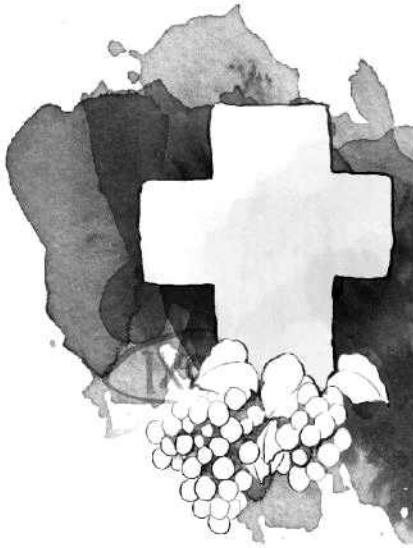


109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후 1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X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32. 만유의 주재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선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을별을 맞은 오곡백과들이 살이 오르고 맛이 더해가는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도 음지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의 은총의 빛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빛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교회연합주일을 맞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을 잃어버린 채 땅의 욕망을 추구하던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교회들이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계21:3b,4 인도자

▲ 교 독 문 39. 시편 95편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대표기도 김정민 장로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216. 성자의 귀한 몸 다 함께

▲ 성경봉독 고전 1:1-3 I. 인도자
II. 안종일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독자
다 함께

찬 양 I. 그의 빛 안에 살면 1부찬양대
II. 주님 안에서 2부찬양대

주님 함께 평화 누리 주님 함께 평화를
 주의 마음 알게 되면 주의 축복 받게 되리
 주가 함께하시면 평화의 강물 내 길 가듯이
 내 슬픔 저 강물처럼 흘러가겠네
 주의 말씀처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함께 평화 누리 주와 함께 평화를
 주의 마음 알게 되면 주의 축복 받게 되리
 성령 함께하시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와 함께 평화를

말 씬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442.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 고백 안에서 함께 연대하며 힘껏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예수에게 빵과 포도주를

<마르셀리노>라는 영화를 보았다. 스페인의 한 수도원에서 발생한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흑백 영화다.

주인공인 마르셀리노라는 소년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수도원 앞에 버려진 고아다. 수도원에는 열두 명의 수도사들이 살고 있는데, 마르셀리노는 그들의 손에 의해 길러진다.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수도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구김살 없는 장난꾸러기로 성장한다.

이 수도원에는 출입이 금지된 다락방이 하나 있다. 그런데 호기심 많은 마르셀리노는 어느 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금지된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거기서 소년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상을 본다. 예수는 한없이 배고프고 지친 모습을 하고 있다. 마르셀리노는 그렇게 느낀다. 그래서 소년은 그날부터 수도사들 몰래 부엌에서 빵과 포도주를 훔쳐서 예수에게 가져다준다. 놀랍게도 몹시 배가 고팠던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소년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는다. 예수와 소년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마침내 자꾸만 음식이 없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수도사들의 미행에 의해 마르셀리노의 기묘한 행적이 알려진다. 그 순간, 예수는 마르셀리노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묻는다. 마르셀리노가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대답하자, 예수는 소년을 안는다. 마르셀리노는 예수의 팔에 안겨 보고 싶은 어머니가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 장면을 목격한 수도사들에 의해 소문은 온 마을로 퍼지고, 마을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려든다.

감동은 논리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지름길로 빠르게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버린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감동의 정체를 논리적으로 해명하지 못한다. 논리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

어떤 기적이 두려움 대신 감동을 선물하는가? 기적을 유발시킨 동인이나 그 기적이 지향하는 바가 사랑, 또는 진실일 때가 아닐까? 사랑, 또는 진실이 일으킨 기적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지고, 더할 수 없는 감동의 폭풍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닐까?

마르셀리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생각해보라. 나는 지금, 예수의 도움을 받아 그 소년이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홀로 버려져 있던 다락방의 배고픈 예수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놀랍게도 경건한 수도사들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였다. 그 다락방에서의 뜻밖의 성만찬에서는 어린 소년이 예수에게 빵과 포도주를 건넨다. 수도사들은 그들의 주인 예수가 공급해 준 음식을 감사하며,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그런데 마르셀리노는 거꾸로 그 음식을 배고픈 예수에게 가져간다. 예수의 배고픔을 알아낸 것은 수도사들이 아니었다. 어린 소년이였다.

어린아이가 배고픈 예수를 찾아낸다. 청결하고 고귀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만이 배고픈 예수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절로 깨닫게 된다.

예수는 굶주렸다. 그를 추종하는 수도사들이 그의 이름으로 배불리 먹는 동안 굶주린 예수는 다락방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 영화는 예수를 섬기는 집인 수도원에서조차 예수가 굶주리고 춥고 외로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예수를 섬기는 무리들이 그 대가로, 혹은 보상으로 배부를 때 예수는 홀로 다락방에 방치된 채 외롭고 춥고 배가 고팠다. 길거리나 시장 바닥이나 극장이나 술집에서 그와 같은 푸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인으로 모셔지는 곳에서 그러했다는 이 영화의 설정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한 예수가 혹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굶주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교회, 혹은 우리 영혼의 구석진 다락방 한 귀퉁이에 배고파 굶주리는 예수를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즐겁고 기쁘게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룩한 종교 의식과 거창한 행사들 속에 정작 예수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또 돌아볼 일이다. 그 예수를 찾아내는 일, 그 예수를 찾아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르셀리노처럼 순수해지고, 것처럼 청결해져야 한다.

- 이승우,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복있는사람) 중에서

■ 마음으로 읽는 글 ■

이슬

- 박이도

이른 아침 너의 앞에 서면
끝내 손댈 수 없는 순수를 본다
빛이 스치는 순간
비로소 숨쉬는 생명의 탄생

투명하고 차가운 우주
내 눈물보다 더욱 순결한 사랑

밤사이 빛어진 신비의 나라
네 속에서 씨앗으로 탄생하고 싶다
대지 속으로 스며들고 싶다

그리고 울고 싶다
다시 태어나는 이슬이고 싶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 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휘 : 강석남 안홍숙 한선희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진선 김 린 이상미 김가현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관정자 구명자 김광일 이부용 김동영 김 린 김문주 김병대 김성순 김승현
 김수진 김영란 김영순 이김정기 김길희 김최숙화 김최전 김문정 김김정 김이문 김성인 김승성
 김주영 김중수 이순정 김지현 윤기호 김지호 김희리 김진옥 김미옥 김병정 김이문 김성순 김승현
 이미영 박명제 서미경 박상옥 김지현 윤기호 김지호 김희리 김진옥 김미옥 김병정 김이문 김성순 김승현
 박준민 최광희 박창운 허해운 윤숙희 안정희 김희광 김이영 김희리 김진옥 김미옥 김병정 김이문 김성순 김승현
 심영관 심해성 안성호 김이영 김희광 김이영 김희리 김진옥 김미옥 김병정 김이문 김성순 김승현
 유용주 윤연실 이완구 이영남 이영남 이영남 이영남 이영남 이영남 이영남 이영남 이영남
 김명희 임고운 오재형 임정현 김희광 김이영 김희리 김진옥 김미옥 김병정 김이문 김성순 김승현
 정종삼 정진호 양순임 정현 김희광 김이영 김희리 김진옥 김미옥 김병정 김이문 김성순 김승현
 최옥자 최윤선 최현 김희광 김이영 김희리 김진옥 김미옥 김병정 김이문 김성순 김승현

감사헌금

강석남 강혜린 권미숙 김금순 김나름 김영락 김재흥 최희영 문복순 박재영
 이현정 박진주 방경선 김안미 김양경 김나름 김영락 김재흥 최희영 문복순 박재영
 이소영 이시경 이유일 김미희 이은혜 이재삼 전정현 임광호 임종수 정학성
 김현숙 조유진 최병민 서지연 하현일 김광우 한상수 남해린 한상익 정영선
 홍복선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경혜 최영혜 박꽃님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영호 김향자 이미정 정효진 무명1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신진식 목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공부 / 강의 : 김재흥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